‘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 여름방학 체험학습 인기

이탈리아의 국보급 작품의 환상적인 색과 빛에 눈을 빼앗긴 관람객들의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상의 작품 보고 ‘유리잔 연주’도 하고

이탈리아 장인 작업 과정 현장에서 견학
풍성한 동영상 유리공예 모든 것 보여줘
체험학습 보고서 만들면 방학숙제 ‘OK’

환호성 치는 아이들의 얼굴이 투명한 유리 작품에 비친다. 애들은 유리잔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소리도 내보고, 이탈리아 유리 장인의 작업 모습을 보며 유리 공예의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 넣는다.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의 진수를 선보이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오는 8월22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광주문예회관 전시장의 표정이다.

여름방학은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소중한 기회이다. 방학숙제로 체험학습활동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하는 학교도 많아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전시장에는 팀을 이룬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아이와 함께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을 찾아 뜻깊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소개한다.

▲베니스 유리 공예 체험하기=이번 전시에는 피노 시뇨레토(Pino Signoretto)의 대표 작품 등 20여 점과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인 스키아본(Schiavon) 가문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이탈리아 유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유리 공예의 역사와 장인 정신 등을 배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장인이 현장에서 직접 유리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최고의 여름방학 체험학습이 될 것이다.

모든 전시 작품은 1200~1500℃에 달하는 뜨거운 유리 재료를 긴 대롱에 매달아 입으로 불어 만든 것이다. 틀에 유리 재료를 부어 찍어내는 다른 나라의 제작과는 달리 전통 방법을 고수하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전통 유리 공예 기법을 공부할 수 있다.

최근 완도 노화중 학생들이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을 찾아 전시 작품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모습.

또 풍성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유리 공예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동영상은 현지 작가들의 작업실 곳곳을 보여주고, 창작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이 창작되는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채워 놓은 뒤 잔 표면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유리잔 연주’도 색다른 체험행사다.

사진 촬영이 자유로워 아이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사진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체험학습 100배 즐기기=여름방학 체험학습은 부모가 함께 예습·복습을 도와주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습을 통해 정확한 유리 공예 정보를 찾아야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느낀 점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복습을 대신하면 된다.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의 예습은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 : //www.kwangju.co.kr/)에 게재된 정보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이번 전시회에 먼저 다녀간 관람객들이 남긴 사진과 설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참여 작가에 대한 정보와 이탈리아 베니스의 유리 공예의 역사 등을 먼저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프로그램과 작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1차 보고서를 만든 뒤 관람 후 2차 보고서를 만들면 효과적이다. 1차 보고서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면 2차 보고서는 관람을 통해 쌓은 지식을 확인하고, 다지는 과정이다.

방학 숙제로는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면 된다. 2차 보고서에는 대표적인 전시물의 사진을 넣고, 작품에 대한 감상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등을 쓰게 해야 한다.

이 밖에 견학 장소와 날짜, 함께 간 사람, 목적, 조사한 자료, 교통편, 견학 장소의 그림안내도, 견학지 소개, 견학 내용과 과정 등을 곁들이면 된다.

문의 062-511-03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0년 최고의 책’ 10권

오마이뉴스·예스24 공동 선정

오마이뉴스가 최근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터넷 서점 예스24와 함께 2000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출간된 한국인 저자의 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 최고의 책’ 10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 지음·부키 펴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을 비롯, ‘88만원 세대’(우석훈, 박권일·레디앙), ‘강의’(신영복·돌베개), ‘칼의 노래’(김훈·생각의나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야·푸른숲), ‘엄마를 부탁해’(신경숙·창비),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노무현,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화’(리영희, 임헌영·한길사), 조정래의 ‘한강’(조정래·해냄), ‘당신들의 대한민국’(박노자·한겨레출판사)이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뽑혔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88만원 세대
강의
칼의 노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엄마를 부탁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대화
한강
당신들의 대한민국

이들 서적은 분야별 전문가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패널의 추천을 받아 후보 책을 고른 뒤 네티즌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 자문위원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화두는 ‘변화’와 ‘불안’”이라면서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88만원 세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단적으로 상징한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한소리회 콘서트 ‘여자들의 수다’

24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는 언제나 노래 소리가 울려퍼진다.

지역 중견 성악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소리회가 진행하는 ‘3시의 한소리 데이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쾌한 연주회다.

24일 열리는 두번째 무대 ‘여자들의 수다’에서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수녀들의 합창’과 ‘도레미송’ 등을 들려주며 ‘라이온킹’ 중 ‘사자는 오늘 잠들어있네’, 영화 ‘인어공주’ 중 ‘Under the sea’ 등을 선사한다.

또 김회창씨가 ‘물망초’와 ‘오 솔레미오’를 선사하며 뮤지컬 가수 조범준씨가 특별 출연, 이영훈의 ‘서로가’, 퀸의 ‘Save me’를 들려준다.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요 ‘휘파람’ ‘어머나’ ‘짠짜라’와 ‘고향의 봄’ 등 가곡, 흑인영가 등은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다. 피아노 반주는 천현주·장희경씨.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227-7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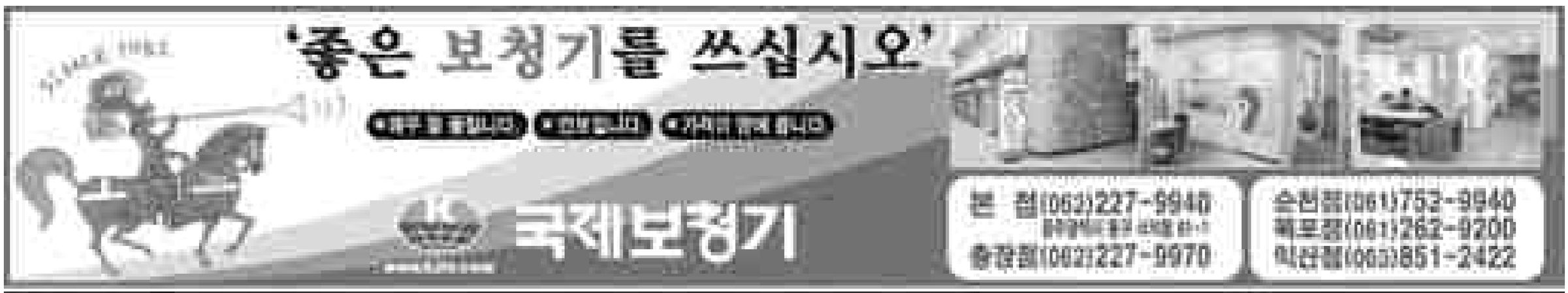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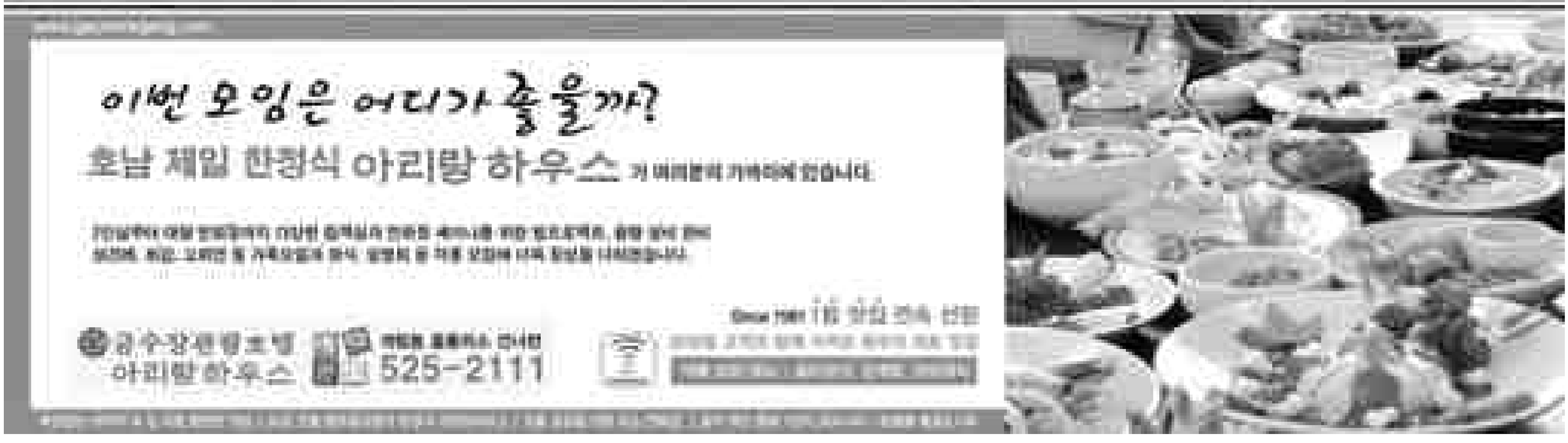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예총 ‘예술광주’ 여름호 출간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펴내는 소식지 ‘예술광주’ 47호(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광주예술인센터 건립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짚어보았으며 영상과 설치, 예술-일상의 프레임을 넘나드는 작가 진시영씨와 배우, 엔테테이너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인 최현진씨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뤘다.

또 ‘예술의 현장’으로 광주세계광엑스포 문화예술존 시민파빌리온 현장과 창단 20주년을 맞는 광주현대무용단의 기획공연 준비 현장을 찾았으며 강남구 건축협회, 정순이 미술협회장, 최영화 연극협회장 인터뷰도 실렸다.

또 주라영씨의 인도여행기 ‘무엇을 먹고 살꼬!’와 조수웅 전 전남문인협회장의 다형 김현승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다룬 글 ‘김현승의 시 세계’도 읽을 거리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